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책책빵빵' 부부의 도서관 이야기 ▶2 | 조울증 주부 자녀와 함께 투신 자살 ▶6 | 화이트 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9 | "맘껏 즐기자" 영암 슈퍼GT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442호 1판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음력 2월 2일)

숨진 기린가족의 뱃 속 보니
노끈·면장갑·과자봉지 가득

슬픈 동물원

"엄마 기린만이라도 살리자"
우치동물원 먹이 금지 팻말

'동물이 배탈납니다. 물·과자·음료수 등의 먹이를 주지 마세요.'

광주우치동물원이 봄 나들이 인파가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기린 사육장 앞에 '의미심장'한 팻말을 설치했다. 사육장 둘레로 2m 거리를 두고 안전펜스도 쳐 관람객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했다. 동물원을 찾는 즐거움 중 하나인 먹이주기를 금지한 것인데 사연이 남다르다.

3년 전인 지난 2010년 3월 29일 수컷 밀레린(당시 11세)과 암컷 아린(〃 8세) 사이에서 몸무게 45kg·키 1.5m의 암컷 새끼가 태어난 뒤 3마리의 기린 가족은 여태껏 우치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귀한 존재였다.

1994년 6월 용인 에버랜드에서 기린을 들여온 이래 처음인데다, 1971년 사직동물원부터 시작해 광주 동물원 개장 이래 40년 만의 출생이어서 안팎의 관심도 대단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키 7m·몸무게 900kg의 수컷이 지난 2011년 12월 2일 갑자기 죽었다. 앞서 같은 해 6월 초엔 2시간40분간의 진통 끝에 세상에 나온 새끼 기린도 쓰러졌다. 행복하게 보이던 기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걸까. 동물원 측은 명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남편과 새끼를 잃은 암컷 기린 '아린'이 12일 광주 우치동물원 우리에 애처롭게 홀로 남아 있다. 아린의 남편인 밀레린과 새끼 기린은 2011년 6월과 12월 잇따라 죽었다. 오른쪽은 밀레닌이 지난 2010년 3월 태어난 새끼를 핥아주며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 /김진수기자 jeans@

부검에 나선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남대 수의과대학과 의료진들은 깜짝 놀랐다. 메스를 들이대고 보니 기린의 위 속이 엉망이었다고 한다. 수컷 밀레닌의 위 속에선 노끈·비닐·과자봉지·면장갑 등이 가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물질들이 뒤엉켜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로 10㎝·세로 5㎝·두께 2㎝ 크기)가 3개나 나왔다. 사인은 증식성 사구체 신염. 위 속에 이물질이 많아 소화를 어렵게 했고 이는 먹는 것도 힘들게 해 신장 등에 염증성 질환이 생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아이가 좋아한다"며 너나 할 것 없이 해온 관람객들의 잘못된 먹이주기 관행이 기린 가족의 이별을 만들어낸 셈이다. 동물원은 관람객이 늘어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 향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치동물원 윤병철 사육담당은 "사육사들이 매일 동물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뒤 이에 맞는 식단을 짜서 먹이를 주고 있다"며 "일부 관람객들이 동물들에게 먹이주기 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오히려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4마리가 질병·부상 등으로 폐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주의 전당, 광주-서울-마산 분산 설치 되나

민주주의운동기념사업회 실무선서 검토
광주시 "MB정부 공약 광주에 설립해야"

광주시가 'MB정부' 때부터 공들여 온 '민주주의 전당' 유치를 놓고 지역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광주-서울-마산 '삼각벨트 분산 설치'를 주장하는 안이 제시돼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광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광주교도소 일대 부지에 '민주주의 전당'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광주시와 경남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현재 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나선 곳은 광주시와 서울시, 경남도 등 3곳이다.

광주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주에 민주주의 전당을 짓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약속해 5년간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삼각벨트 분산설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도 마산 3·15 의거 관련 단체와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 등이 마산유치추진위를 구성한 상태다. 경남에서는 3·15 의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2009년 6월부터 전당 유치 건의를 해왔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약으로 발표된 것을 계기로 유치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당 건립주체인 기념사업회측은 2011년 말 서울 남산의 옛 중앙정보부 건물로 사용된 별관을 리모델링, 전당을 건립하기로 서울시·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했으나, 지역간 유치 경쟁과 정부 교체 등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면 백지화됐다.

기념사업회 측은 광주와 마산에서 유치 운동이 가열되자 "광주와 마산도 의미가 있는 곳이고 공식 유치요청을 하고 있어 같이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회의 한 관계자는 "1차로 서울에 전당을 만들고 광주와 마산에도 2, 3관을 설치, '삼각벨트'를 형성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거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에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이경률 인권담당관은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광주에 유치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민주주의 역사 등을 고려해봐도 수도권(서울)에 꼭 전당을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 림

일본 문화페스티벌

나가이 가즈마사 작 'SAVE'

나가이 가즈마사 전시회·젊은 음악가콘서트·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제

광주일보사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 문화센터와 일본문화를 광주에 소개하는 **'일본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양 기관은 올 한해 음악, 미술, 영화 관련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삿포로 동계올림픽 심볼마크 등을 제작한 그래픽 디자이너 **'나가이 가즈마사 전시회'**(3월21일~4월10일·광주 롯데갤러리)를 시작으로 첼리스트 사야카 세리나, 바이올리니스트 김원호, 피아니스트 쿠리타 아사코가 출연하는 **'젊은 음악가 교류 콘서트'**(4월3일·금호아트홀)가 이어집니다. 또 7월에는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제'**(광주극장)를 개최합니다.

광주일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 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광주일보
특별협력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광주롯데갤러리, 광주극장
후 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한스위스대사관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Mercedes-Benz

암울했던 80년대
마음붙일 곳 없던 호남인들을
포근히 감싸주던 잡지가 있었습니다.
월간 藝鄕.
깊은 한을 예술로 승화시켜온
예술의 고장 호남과 호남사람들에게

이 잡지는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대표잡지로 불리며
18년간 매달 독자들의 손에 안기던
월간 藝鄕은
아쉽게도 2002년 봄 휴간을 맞게됩니다.

2013년 봄,
보다 젊고 세련된 모습으로 월간 예향이
돌아왔습니다.

호남과 세계를 잇는 잡지
호남인의 삶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한 잡지
호남을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 예술 교양지
월간 예향은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잡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향 복간호(4월호) 3월 마지막주 발매
정기구독 신청 접수중 062-220-0550